SF블록버스터 … 여름극장가 '흥행몰이'

'인셉션'-디카프리오 등 출연 … 타인의 꿈속 침입 작전 수행

'오션스'-수중 카메라에 담은 전세계 해양생물 200여종 눈길

'마법사의 제자'-뉴욕 명소 무대로 펼치는 마법사들의 대결

본격적인 여름 흥행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소재의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경우 강우석 감독의 '이끼'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외화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쏟아내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21일 동시개봉하는 '인셉션'과 '마법사의 제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화제작이다.

'베트맨' 시리즈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다크 나이트'의 히로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인셉션'은 가까운 미래,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로 타인의 생각을 훔치기 위해 꿈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물이다.

영화의 제목인 '인셉션(inception)'은 단체나 기관들의 시작이라는 뜻의 단어로 영화 속에서는 '타인의 꿈속에 침입해 새로운 생각을 입력하는 작전'을 뜻한다.

이미 '메멘토' 등을 통해 꿈과 기억에 대한 소재를 맛깔스럽게 영화로 표현해 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작품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여지 없이 발휘한다.

배우진도 화려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생각을 지키는 특수보안요원이면서 또한 최고의 실력으로 생각을 훔치는 도둑 역으로 인셉션 작전을 이끄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또 '500일의 썸머'의 조셉 고든 래빗,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 엘런페이지, 킬리언 머피 등과 '라비앙 로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마리옹 코틸라르가 함께 출연한다.

'인셉션'은 미국 LA,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모로코 탕헤르, 캐나다 로키산맥 등 6개국 로케이션에서 펼쳐지는 무중력 회전 격투 장면과 건물이 접혀 무너지는 장면 등 화려한 신이 가득하다.

해양 블록버스터 '오션스'는 새로운 촬영 기술과 수중 촬영 전문가들의 열정이 담아낸 해양 생태계의 새로운 발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바다의 아름다운 영상과 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오션스'는 해양생물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한 영상으로 표현한다.

위험을 무릅 쓴 수중 촬영전문가들의 열정과 특수한 촬영 장비를 개발해낸 제작진의 적극적인 움직임의 결과 '오션스'는 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서 개봉돼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오션스'의 촬영팀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 해양에 걸쳐 50곳 이상의 로케이션을 선정해 총 200여종의 생물을 촬영하였고, 영화 속에는 엄선된 100여종이 등장한다.

특히 보존지역, 해양보호구역, 또는 인간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생물들이 총출동한다. 29일 개봉예정이다.

전미 흥행 4억 달러에 빛나는 '내셔널 트레져' 팀이 다시 뭉친 '마법사의 제자'는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다.

'마법사의 제자'는 현대 과학이 집결된 최첨단의 도시 맨하탄에서 어느덧 환상 속의 신화가 되어버린 위대한 마법사 발타자 블레이크와 사악한 어둠의 마법사 맥심 호르바스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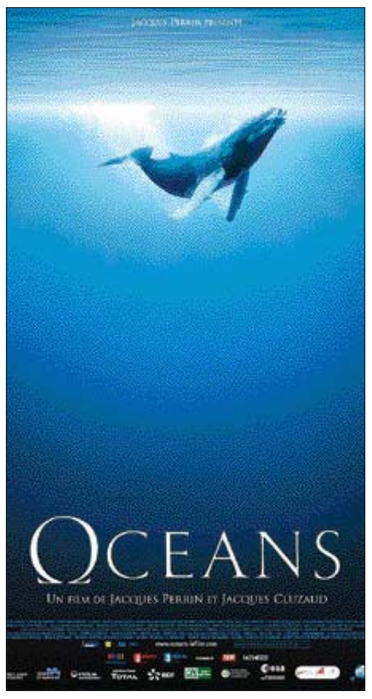
뉴욕의 실제 명소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절체절명의 마법 전쟁 등 환상적이고 짜릿한 명장면들이 눈길을 끌며 니콜라스 케이지와 알프레드 몰리나 등이 출연한다.

섹시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솔트'는 CIA요원 에블린이 이중 첩자로 의심받게 되고, CIA 요원으로서의 명예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툼레이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원티드'를 통해 독보적인 액션을 선보여온 안젤리나 졸리는 '솔트'를 통해 격렬한 전투를 선보인다. 달리는 오토바이를 낚아채 타는 것은 물론, 대역이나 CG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고난도 액션을 펼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7월 말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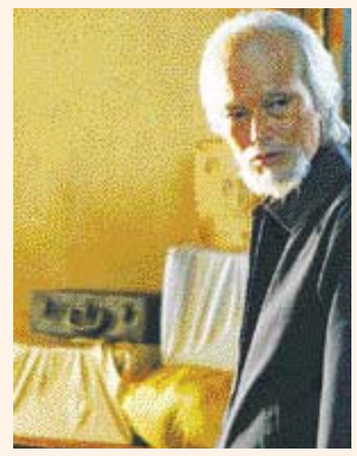
'마법사의 제자'



'오션스'

'인셉션'

새 영화 이끼



만화 연재 화제작

아버지 사인 의심

마을사람과 신경전

인터넷에 연재돼 화제를 모았던 윤태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스릴러물이다.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듣고 시골 마을로 내려간 유해국. 이장을 비롯, 그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인에 대해 미심쩍은 태도를 보이자 본능적으로 수상한 낌새를 챈 유해국은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그는 베일에 싸여 있던 아버지의 지난날과 마을의 비밀을 한 꺼풀씩 벗겨나가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의심하고 검사 민욱에게 도움을 청한다. 한편 그런 유해국이 못마땅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투갑스', '공공의 적', '실미도'를 만든 흥행 마술사 강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지금까지 영화와는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70대 노인으로 분한 이장 역의 정재영을 비롯해 류해국역의 박해일, 검사역을 맡은 유준상, 유해진, 김상호, 허진호까지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여배우로는 유선이 참여했다.

각본은 '헤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이 썼으며 러닝타임은 2시간 30분이 넘는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